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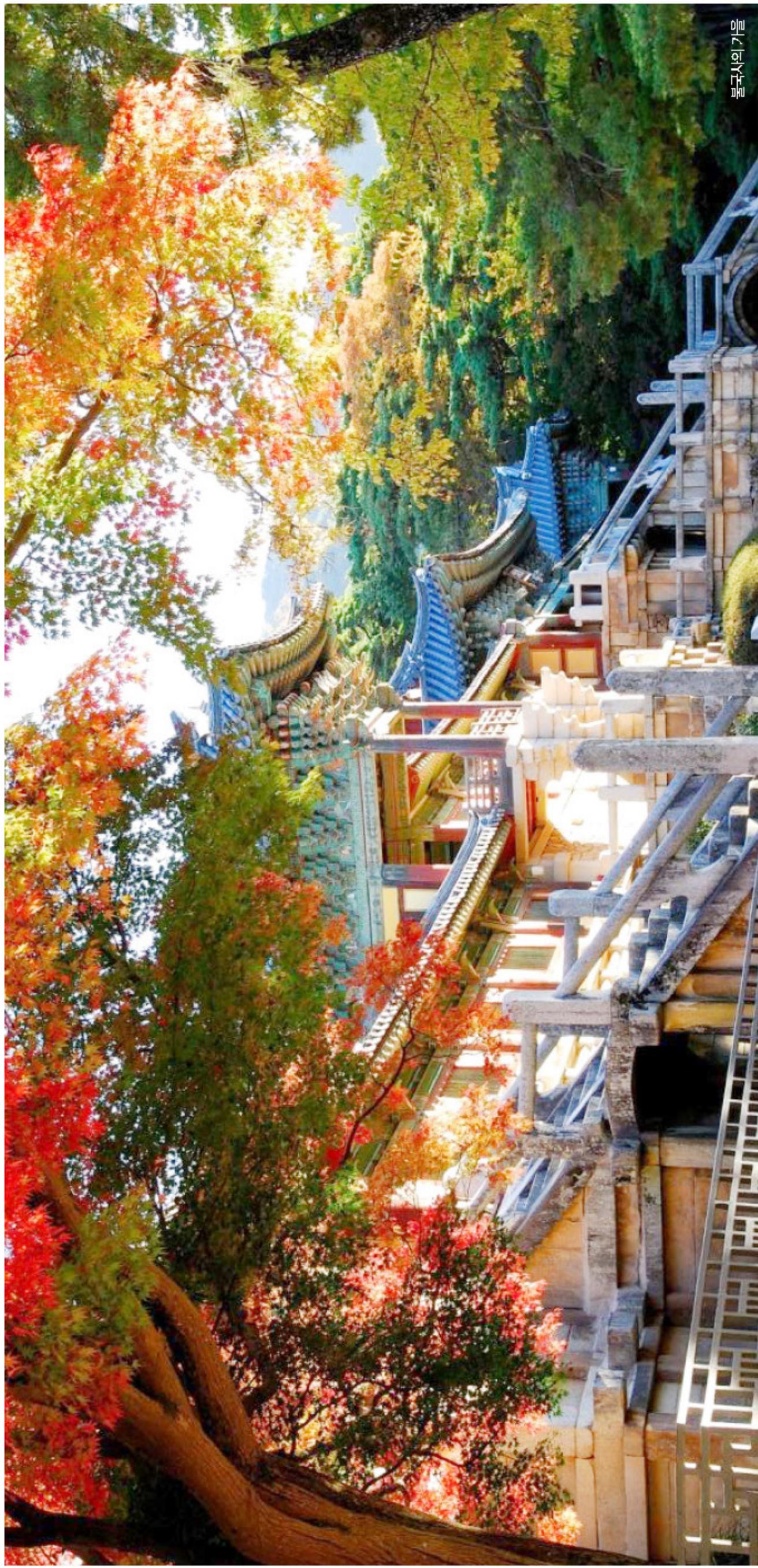
경상북도 의회소식



council.gb.go.kr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2015. 11. (제280회 임시회)



불국사외가들

■ 도정질문 14면
 - 도정질문 : 0 태수, 0 동호, 정상규, 조현철, 0 진락, 오원
 ■ 주요 처리민건 소개 14~15면

■ 특별기고 5면
 - 인재가 머무는 지역을 만들자
 ■ 위원회 활동 (상임, 특별) 6~13면
 - 오호운영, 7 옥경재, 행정보안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간설소방, 교육위원회, 여신결산특별위원회

■ 화보(불국사외 가을) 1면
 ■ 의정소식 / 의정만평 2~3면
 ■ 인물포커스 / 특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4면
 김인중 행정보안복지위원회 부위원장, 0 진락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인회 영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 간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지면안내

제280회 임시회 개회사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에 대한 대책 마련 당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행정부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대풍이라 할 만큼 황금빛으로 넘실대고 수확의 기쁨이 넘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중에도 몽골, 중국, 서호주 의회와의 국제진선교류 확대를 통한 지방외교 활성화와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경제·문화 등 관련정보의 수집 관리를 위한 생산적이고 대외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된 지역민을 위로하고,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가안정 대책

마련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 관계관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도에서는 인류평화와 화합을 위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문화교류를 기반으로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큰 국제행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세계의 평화와 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전행정력을 모아주시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



성 A바이러스가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나 예전의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전국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에서는 A바이러스 조기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금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도의회와 적극 협력·대응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악화 방지에 헌신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도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서는 도정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보충질의나 의문사항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와 지원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1.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제280회 임시회 보름간 열어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등 안건처리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조례안 등 25건(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0건, 개정조례안 9건, 집행부 제출 5건, 계획안 1건)을 심사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와 도내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 도정질문은 5명(첫째날 3명, 둘째날 2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

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TV생중계도 실시했다. ☺



의정만평



의회소식

발행인, 장대진 기획편집, 장영호, 임필규
편집인, 이병환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경북도의회, 경북도 죽이기 선거구 획정안 결사반대

경상북도의회는 10월 23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장대진 의장, 장경식 부의장 등 도의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죽이기 선거구 획정안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의회는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경북이 제물이 될 수 없다며, 정계특위는

경북의 자존심을 짓밟는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여·야 지도부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경북·대구·광주·전남 4개 시·도의회의장, 영·호남 상생발전 위해 손 맞잡았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등 영호남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10월 16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폐회 후 따로 만나 영호남 상생발전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당면한 양 지역의 주요 공동현안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호남을 잇는 88 올림픽고속도로의 11월말 역사적 확장·개통을 계기로 영호남 4개 자치단체가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동서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 지역 공동주요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앞장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



경북도의회, 경주 통일전 참배 남북통일 기원!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9월 17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15명의 도의원과 정병운 사무처장을 비롯한 도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삼국통일의 주역이 모여져 있는 경주 통일전(統一殿)을 찾아 현화·분향하고 남북통일을 기원했다.

이날 참배는 제37회 통일 서원제(10월 7일,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완수한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에 앞서 삼국통일 정신을

계승하고 분단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통일 공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통일전 방명록에 "민족통일의 중심인 이곳 통일전에서 신라 삼국통일의 위업을 계승하여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 시대를 열어 갑시다"라고 서명하고 "전 도민들의 뜻을 모아 한반도 평화정착을 염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의정회, 영호남 친선 교류 위해 경북도의회 방문

전라남도의정회(회장 이완식) 30여 명이 11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영호남 친선 교류를 위해 경북도를 방문했다.

전남도의정회 일행은 경북도의정회(회장 양재경) 회원 5명과 함께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홍보영상을 시청

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본 후 윤창욱 부의장과 영호남 상생발전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이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찾아 동서교류의 흔적을 체험한 후 경주하늘마루장례식장을 방문해 장사시설을 꼼꼼히 둘러봤다. ☺



신청사 이전 준비상황 최종 점검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10월 26일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안동 도의회 신청사를 찾아 이전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현재 신청사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 및 음향시스템, 상임위원회 집기구입 및 전자회의시스템, 역사·홍보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완료했으며, 사무용 가구류 구매,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통신망·전열기구 설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부서별 사무공간을 협의하여 배치하고, 이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



부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도민 행복을 위해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복지수요의 증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주민들의 자지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할 복지실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도의회 및 집행부 간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밝혔다.

김인중 부위원장은 안동 출신으로서 농협중앙회 여성복지팀장, NH개발 경북북부지사장, 새누리당 경북도당 여성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틈틈이 주경야독으로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평소 관심 분야인 사회복지학을 독학하여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여성정책 확산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최근에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해체 문제가 대두되고, 여성일자리, 보육, 사회보장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도의회 자원에서의 책무와 역할도 막중해졌다.”고 생각하며, 도의원으로서 책임감에 대한 평소의 소



김인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10대 경북도의회 진출후에는 사회적 약자층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가장 먼저 도내 여성폭력이 급증함을 지적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예방교육 확대와 피해자 예산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성평등 수준 제고 및 여성일자리 정책의 내실화 촉구,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한 대처를 질타하고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도의회 자원에서의 정책 대안제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제 곧 신도청 시대가 열린다. 이를 계기로 꿈과 희망이 있는 보다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여러 의원 및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유의 소탈함과 다양함을 포용하는 넓은 사고로 ...

도의회에도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은 경력으로 보면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남다른게 과학을 좋아하는 경주에서 태어난 소년은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전기공학과, 영남대 공학박사, 경주대 문학박사 등 다양한 학문을 탐구한 후 포스코에 입사하여 8년간 근무했다.

지역주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 그들의 가슴 속 깊은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정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그는 제 2대 경주시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3대, 5대 등 3선 시의원을 역임한 후 현재 제10대 도의원이 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옆집아저씨와 같은 푸근한 인상으로 최근에 다녀온 현지확인에서는 관광객 아주머니가 동네의 세탁소 아저씨로 오해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가지고 있다.

푸근한 인상과는 달리 최근 도청이전에 대한 도정질문시에는 자신의 견해와 우수시책 제안 등 자신의 의견을 소신



이진락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있게 제시하는 추진력도 가지고 있다. 아코디언이라는 악기에 매력을 느껴 가벼운 취미로 연주했으나, 최근에는 수준급의 실력으로 많은 공연에 참가하는 등 악기연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로당에서의 아코디언 연주로 많은 할머니 팬을 확보하고 있다.

이진락 부위원장은 “아코디언이 무겁게 느껴지는 악기지만, 연주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면 나의 몸과 하나가 되어 무겁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고 말하며, “정지도 이와 똑같이 주민들을 사랑하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웃고, 울고, 숨쉬며 살아가는 다정다감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TA 개방화시대 지역 농어업 · 농어촌 지키기에 혼신의 힘 다할 것

안희영 부위원장은 예천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초선 도의원으로 경북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남다른 열정을 인정받아 제10대 도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에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위원장은 당선소감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의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농수산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이제 농어업인도 잘사는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제10대 농수산위원회는 그동안 조례안, 예산안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고,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조례발의, 도정질문, 농업인 단체들과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경북이 자랑하는 우수 농식품에 대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수출촉진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



안희영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고, 또한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경북도의 곤충산업이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유익한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바람과 도정방향을 구체화·현실화시켜 농어업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안희영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어가소득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농어촌의 현실”이라며, “축산업을 직접 경영하며 농업인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 다양한 현장 지식과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경쟁력 있는 농어업, 살맛나고 활기찬 농어촌, 함께 잘사는 더 큰 경북세상을 만드는데 온 힘과 마음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간의 균형있는 소통과 연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상북도의회 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전반기를 맡고 있는 박용선 부위원장은 금번 10대 의회에서 포항지역 비례대표로 도의회 입성후 현재 건설소방위 부위원장을 맡고있는 초선의원이다.

일찍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포항의 대표적인 회사 포스코에서 근무하면서 자란 포항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남은 삶을 불태우고자 했다.

직장인에서 정당인으로 변신해 성공한 박 의원은 지역 출신으로 가장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자신도 서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경북 도민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끊임없이 고심하며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임하고 있다. 특히 포항항도청년회장으로서는 청년의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경상북도의 활성화로 이끌기 위하여 불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내의 거점에 대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지역의 명소에 경북도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과 외국인을 위한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사업가의 애환과 고통을 덜어주



박용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고 싶은 뜻을 갖고 있으며,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88올림픽 고속도로를 시대적 요구와 지역적 요구에 맞도록 각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명칭변경에 관한 화두를 던져 영호남간 동서화합의 불씨를 틔웠다.

박용선 부위원장은 “지역의 단편적인 문화와 시설만으로 사람들을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경북도내의 각종 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변의 특색을 갖춘 문화와 지역간에 연결이 중요하다. 우리 도의 좋은 것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각각 쪼개진 구슬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영남과 호남간에도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간의 물리적 연계가 핵심이다.”고 말했다.

인재가 머무는 지역을 만들자

노석균 영남대학교 총장



전경련이 최근 '2015년 주요그룹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대학생 1천746명(남자 1천18명, 여자 7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지방대학생들이 희망근무지로 서울 등 수도권(31.9%)보다 지방(66.9%)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나타난 지방선호도(61.5%)보다 높아진 결과다. 희망기업은 대기업(52.8%), 공사 등 공기업(20.8%), 중견기업(9.9%), 외국계 기업(7.5%), 금융기관(4.8%), 중소기업(2.1%), 기타(2.1%) 순이었다. 지방근무 선호 이유로는 '수도권의 주거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서'(43.6%)가 가장 많았고, '지방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22.0%),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서'(17.4%), '가족애인과 떨어져 생활하기 싫어서'(10.6%), '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4.7%) 등의 순이었다. 희망연봉은 평균 3천698만원이었다.

조사결과만 보면, 인재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희망적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취업시장의 현실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지역대학을 졸업한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역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취업박람회, 기업설명회 등이 많이 열리고, 구직자들은 다양한 기업에 관한 정보들을 접할 기회도 많다. 그러나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사 기업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이러한 이유가 수도권 지역으로 인재들의 눈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실제로 지역에는 취업할 만한 기업 또는 직무

들을 키워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려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역외기업 유치나 공단 조성 등 하드웨어 측면에만 초점을 둔 성장

은 현실에 바탕을 두었을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 운운해서는 안 된다. 산업 및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으로 청년취업난 극복에 앞장 서야 한다.

인재가 부족하면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고 지역격차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은 예부터 인재의 산실이었고, 인재는 우리 지역의 큰 경쟁력이었다. 그 전통을 이어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인재의 경우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다.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당면과제는 지역의 기업과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고 활용해서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인재들이 먼저 찾는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 산업계와의 유기적 협력 속에서 미래먹거리산업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특화된 우수기업 육성에 주력하고, 대학은 지역과 기업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전략산업의 첨단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상생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경상북도가 지역으로 이전해 온 12개 공공기관과 지역인재 채용, 지역창조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며,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성과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

상생하는 협력시스템 구축

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지방에는 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만한 직업의 다양성도 부족하다. 때문에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식의 이러한 아이러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선순환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인재들이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주축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대학진학을 위해 외부로 나갔던 인재들도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인재가 머무는 지역, 인재가 모이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힘을 모아야 한다.

먼저 지자체는 지역의 우수 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역 대학생들은 취업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지역 기업들은 뽑을 인재가 없다고 한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인재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우수 지역기업에 대해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간판기업'

정책을 뛰어넘어 정주 여건 개선, 지역 문제에 대한 청년 참여와 발언권 확보, '이류 의식' 해소방안 등 경제 외적인 요소, 즉 소프트웨어 측면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총체적 개발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인재 선순환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산·학·관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지역 기업들은 먼저 '좋은 일자리'(decent job)가 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좋은 인재들은 그들의 품격에 맞는 직무와 보상을 원한다. 지금처럼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인재들에게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에 머물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고만고만한 기업, 평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로는 인재를 끌어당길 수가 없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특화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담보한다면 인재들이 세계에서 몰려들 것이다. 아울러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라는 인정을 받을 때 인재들은 기꺼이 그 기업을 선택할 것이다.

지역 대학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좋은 인재'를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1세기 지식산업의 핵심동력은 '창조적 두뇌'다. 창조

제28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2015년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제281회 정례회 회기협의 등 안건처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80회 임시회 회기 변경 협의의 건, 제281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2015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개최하며, 주요안건으로 도정질문,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사무 업무전반에 대해서 7개 위원회가 소관 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건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데 빈틈없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심사하면서 경상북도 본청 및 사업소, 출자법인,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등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 감사위원회별 감사일정이 중복되거나 계획이 상충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홍진규 운영위원장,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 참석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인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군위)은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청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7기 전반기 제2대 임원 선출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

고, 부회장(2명), 감사(2명), 사무총장(1명)을 선출했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운영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홍위원장은 전국시·도 운영위원장들의 박수를 받으며, 지난 1년간 사무총장 임기를 마무리했다. 그 밖에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관계자와 전국 운영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 발전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



제28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기획경제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1, 2, 10월 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조례안 심사

위원 연찬회를 통한 소통의 시간 가져

조례안 3건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0월 1일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201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119안전센터 신설 등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조례로 원안 의결했다.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재정투자사업은 「경상북

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었으나, 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한 조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했다.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 심사 후에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연찬회를 실시했다. 제주도에서 실시된 이번 연찬회에서는 백은숙 지해상담연구소장을 초빙하여 소통의 정치에 대한 특강을 가지고 문화탐방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 방법, 질문 방법 등 감사기법에 대한 의원 상호간의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소통이며, 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리가 자주 있어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법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다시 한번 갖겠다고 말했다.☺

2



1, 2, 10월 6~8일 기획경제위원회 연찬회 개최

제280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행복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

주요 조례안 의원발의 추진으로 지역주민 목소리 대변 행정사무감사 및 '16예산안 심사대비 의원 워크숍 실시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의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2015. 10. 1(목)~ 10. 2(금) 양일간 상임위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 의결했다.

먼저, 황이주(울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매관리 및 광역지매센터 설치 · 운영 조례안」은 경상북도 광역지매센터 및 거점지매센터 운영, 상담센터 및 쉼터, 지매검사 활동 지원 등 지매관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상북도 할매 · 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할매 · 할배의 날을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하고,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 · 할배의 날 기념일로 규정했다.

다음으로 지난 회기에서 의안 유보된 안건인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원에 관한 규정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이사 추천자 중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했다.

특히, 금번 개정안에서는 의원원장이 3년 임기이나, 연임할 시에는 성과계약 이행 정도,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의 결과, 경영실적, 감사 지적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임명토록 했다.

둘째날, 최태림(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 참여와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되,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수정 의결했다.

안동 출신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 시행,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칠곡 출신 김정숙(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 · 운영 조례안」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 번의 전화통화로 해결하기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어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또는 마을단위 평생교육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및 장애인 · 다문화세대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집행부 안전인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해안119 특수구조단 청사건립 △대구 · 경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 및 장비 취득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심의 · 의결했다.

행감 및 '16년도 예산안 심사대비 의원 워크숍 실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회기(11. 6~12.18)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주요 사업 현장방문과 의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주요 현장방문 일정으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등을 방문하여 여성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주요업무와 여성일자리 연계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받고 현장 체험을 공유했다.

이 밖에 워크숍 행사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략」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접근 전략과 예산안 심사 착안 방향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울진)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들과의 소통과 토론, 전문가의 자문, 정책연구를 통한 대안 제시 등 합리적으로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역설했다.☺



1.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현지방문
3. 2015년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워크숍



제280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하기 위해 경기장을 직접 찾아 열띤 응원 펼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80회 임시회 기간중인 10월 5일(월)부터 6일(화)까지 2일간 현지확인을 통해 소관 부서의 주요시책에 대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했으며, 특히 전국체전에 참가한 경북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장을 직접 찾아 열띤 응원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 심사'

이어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진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배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했다.

'비회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열띤 응원 펼쳐'

마지막으로 비회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월 19일 제96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강릉종합운동장을 방문하여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경상북도 선수단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들께서는 먼저 경상북도 선수단을 격려한 후, 경기가 개최되고 있는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여 열띤 응원을 하는 등 경상북도 체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권현(청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체전 개최장소가 강원도 강릉지역이라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화환경위 위원들이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달려온 발걸음은 가벼웠고, 직접 경기장을 찾아 경북 선수의 경기를 응원할 때에는 매우 가슴 뿌듯한 시간이었으며, 이번 대회를 준비한 집행부 및 체육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청송 객주문학관, 울진금강송 현지확인, 문화·산림자원과 연계한 권역별 관광벨트 모색'

10월 5일 ~ 6일에는 청송, 영덕, 울진지역의 문화관광 및 산림자원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송의 객주문학관에 대한 업무현황 점검 및 우리나라 금강소나무의 최대 군락지인 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현지 점검을 통해 청송의 문화관광자원과 영덕, 울진의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청송-영덕-울진을 잇는 권역별 관광벨트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1. 울진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현지방문
2. 강릉종합운동장 경북선수단 방문 격려
3. 청송객주문학관 현지방문

농수산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심사

당면현안 보고 청취 및 2015 행정 사무감사계획 심사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7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 앞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 가동으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농수산위원들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단기간에 지역 축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그동안 방역추진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농가의 의식과 시설개선 및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 철저한 현장방역

등 방역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심사·의결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6년도 당초예

산안 심사 등 각종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농수산위원회 소관기관인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와 그 소속의 5개 사업소,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연구소·시험장 포함) 및 3개 도 출연법인에 대해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



2015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구미·예천지역 농축산업 현장 방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농수산위원회 현장의정 활동 펼쳐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임시회 기간중인 10월 7일부터 8일까지 구미와 예천지역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주요 사업장들을 방문해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먼저 7일에는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내 농기계 임대사업장, 씨감자 배양장,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이어 구미시 해평면에 소재한 벼 무논점과 동시에 축조시비 사업 현장과 산동면에 소재한 구미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잇따라 방문해 시설들을 견학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무논점과 축조시비 기술은 노동력과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도 및 구미시 관계자들에게 사업이 농가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8일에는 쌀 관세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쌀

품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성 쌀을 생산하고 있는 예천군 기능성 쌀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생산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어려운 쌀 산업 여건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회원농가와 쌀 농가 소득안정과 소비촉진, 품질고급화와 가공산업 육성 등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심도 깊은 질의·토론시간도 가졌다.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얻은 다양한 현장 지식과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촌의 현장에서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들을 직접 수렴하고자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예천 기능성 쌀 영농조합법인 방문



구미 벼 직파 시범단지 현지 방문

건설소방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 2015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연찬회 개최



1. 조례안 심사 | 2. 2015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연찬회 |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지방문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제280회 임시회 기간중 10월 2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2건을 원안가결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수립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박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징수·부과를 위해 제정한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에 맞게 감액조항 및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도민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다. 이어 이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통과와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

의 연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도민안전실, 지역균형건설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이며 직속기관으로는 소방학교, 17개소방서와 1개 사업소(종합건설사업소) 등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연찬회 개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첫째날에는 리더십&코칭센터 대표

변영실 대표를 초빙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힘 소통'에 대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연이어 제주대학교 오승은 교수를 초빙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튿날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하여 의원 상호간 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보다 상호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곧바로 제주 아라~회천간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주에 걸 맞는 교통인프라 구축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번 연찬회에서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은 "다양한분야의 소양및 전문 지식을 공부하고 타 시도의 발전모델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지역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한 민생 우선 의정활동 펼쳐

조례안 심사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현일 의원(경산)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했다.

10월 6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조현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간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자랑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행정저분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교육위원회 이영식 위

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1인 시위'와 관련한 「결의안」을 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경북도의회 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영식 위원장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우선 의정활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교육부 앞 1인 시위 강행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9월 22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저지를 위한 결의문 발표와 함께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9명이 전원 참석한 이날 교육부 앞에서 결의안을 발표하고 이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강행했다.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7월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학교수 기준은 내리고, 대신 학생 수 기준은 대폭 올리는 산정 방법과 함께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의 경우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37%의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로 통폐합 대

상이며, 내년 교부금도 540억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식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인데, 농산어촌의 특수한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재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붕괴와 함께 도농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결국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지방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1인시위(이영식 위원장)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단체성명서 발표

제2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예결특위 연찬회 개최, 예산편성 방향 설명회 및 예산 심사기법 특강 실시



1. 20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2·3 연찬회 기간중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 청취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오는 12월 당초예산을 앞두고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구미시 일원에서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 이태식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예결특위 위원들은 다가오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새마을세계화재단,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 동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집행부로부터 예산편성방향 설명, 예산안심사기법 등에 관한 특강을 들은 후, 위원 상호간 활발한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연찬회 첫째 날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새마을세계화재단 및 경북행복재단의 운영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면서 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했다.

이어 예결특위 위원들은 곧 바로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을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면서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이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데 대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부서로부터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예산안심사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둘째 날에는 숙소인 금오산 호텔에서 “예산 및 결산 심의기법”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예산의 기초이론과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의기법, 참고자료 활용방법 등에 대해 특강을 가졌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심사방향과 도청

신도시 기반조기구축, 청년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예결특위 위원간 진지한 토론과 논의의 시간도 가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식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다가오는 12월에 예정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정리추경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소통과 화합은 물론 위원들의 예산심사 역량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9월 3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태식(구미) 위원장, 최병준(경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예결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써 다가오는 11월 6일부터 개최되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도정질문

김천구미KTX역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이태식 의원은 구미 5공단과 김천혁신도시를 잇는 국도지선 지정, 김천구미KTX역 활성화 방안, 공공의료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의 신성장 동력을 갖춘 핵심도시로 주목받는 구미 5국가산업단지의 물



이태식 의원(구미)

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5국가산업단지과 김천혁신도시를 잇는 국도지선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천구미KTX역이 경주역과 인구대비 이용객을 비교 했을 때 구미라는 대도시를 끼고 있는 김천구미역이 오히려 0.23% 낮다고 주장하고 광역철도망사업으로 구미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시·군보다 대구에서 신도청까지 접근성이 좋고 각 시·군에서 신도청까지 접근성에도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시·군간 신도시 접근성에 관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에서 신도청까지 96km 거리를 차로 이동하면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지만 대구에서는 110km로 거리는 더 길어도 같은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지방도 및 문화재보호 구역 관리부실 등 대책마련 촉구

이동호 의원은 현재 경북도의 도로 포장률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 86.2%이고,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제외한 도로 포장률은 72.7%로 매우 낮아 경북도의 지방도 포장률을 신장시키기 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호 의원(경주)

그리고 도내 지방도의 구조적 결함이나 유지·관리부실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는데 도내 지방도의 전체 도로예산 대비 유지·관리 예산은 2011년 9.8%에서 2015년 9.1%로 0.7% 감소하였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2010~2015년까지의 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투입된 도비는 1억 7,000여 만원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도비예산 100여 억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 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을 위한 다각적 사업추진 및 사유지 매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형 한옥 성공적 정착 전략 마련해야

정상구 의원은 경북도의 한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조직구성 등 철저한 대책수립을 강조했다. 경북도는 문화재로 지정된 우수한 한옥이 2010년 기준 297동으로서 전국의 45%, 문화재 한옥을 제외하고 비지정 한옥도



정상구 의원(영도)

8만 9천여 채로 전국 3번째지만 아직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고 겨우 작년부터 한옥조사와 경북형 한옥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뒤늦은 대책에 나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종합적 한옥 진흥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14년 6월에 제정하는 등 한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다 전남, 전북, 서울 등 일부 광역시·도는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한옥활성화 조례를 제정, 한옥 붐을 조성하는 등 선도적으로 추진하는데 비해 경북도의 대책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의 철저한 수질관리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 시너지 효과를 위해 경북지역에 '진료기록보관센터'를 유치해야

조현일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의 경우 의료산업 45조원, 관련 산업 37조 2천억원 등 총 82조 2천억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약 38만 2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본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개인 진료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진료기록보관센터를 첨단의료복합단지나 대구인근인 경산와촌지역에 구축하여 창조경제시대 경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을 통한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질문했다.



조현일 의원(경산)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체육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학교 시설 개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듭된 도청이전 연기는 행정 불신만 초래, 체계적 분석 통해 시기 결정해야...

이진락 의원은 2014년 6월부터 도청이전을 몇 번씩이나 연기한 것에 대해 도의원이기에 앞서 도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 다시는 이전연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전연기론'에 쐐기를 박을 것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이전 계획으로 인해 거듭된 이전연기는 결국, 도정 전반에 걸쳐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성실한 사람이 피해를 보

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내년 2월 이전을 기점으로 대구 소재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해 신속 적절한 동반이전을 하게 할 때 명실공히 성공적인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도청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진락 의원(경주)

제280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5. 9. 18.
제안이유: 도민 안전사고지대 해소와 현장대응 활동체제 강화를 위한 119안전센터 신설 등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원자력클러스터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금년 12월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전담인력의 한시정원 조정과 남북교류협력 등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자 함.

▶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발의자: 이흥희 의원의 10명 2015. 9. 18.
제안이유: 경북도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는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었으나, 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의자: 김희수 의원의 4명 2015. 9. 18.
제안이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

업의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통하여 도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넓히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및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농업의 농외소득 창출 등을 위해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발의자: 홍진규 의원의 8명 2015. 9. 22.
제안이유: 주민자치와 주민화합을 통한 경북도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상북도이장·통장연합

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김인중 의원 외 10명 2015. 9. 18.
-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북도차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김정숙 의원 외 2명 2015. 9. 18.
- 제안이유: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행복클러스터 설치·운영 조례안

- 발의자: 김정숙 의원 외 2명 2015. 9. 18.
- 제안이유: 도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번의 전화 통화로 해결하기 위한 민원상담 클러스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박영서 의원 외 2명 2015. 9. 18.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15. 7. 2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발의자: 한혜련 의원 외 16명 2015. 9. 18.
- 제안이유: 장애인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

▶ 경상북도 차매관리 및 광역차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발의자: 황이주 의원 외 4명 2015. 9. 18.
- 제안이유: 「차매관리법」에 따라 차매의 예방과 관리 및 차매환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 발의자: 구자근 의원 외 4명 2015. 9. 18.
-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함.

▶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5. 8. 13.
- 제안이유: 정부의 도로명 주소제계의 변경 등에 따른 조례의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고, 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에 공공보건 전문가 및 지역주민대표의 참여로 경영의 투명성을 기하는 한편 원장 임명절차를 강화하여 의료원의 공공성과 경영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5. 9. 18.
- 제안이유: 매월 마지막 토요일 할매·할배의 날을 기념하고자 할매·할배의 날 기념일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

▶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최태림 의원 외 4명 2015. 9. 18.
- 제안이유: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15. 7. 1.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5. 9. 18.
- 제안이유: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취득은 동해안 지역 원자력·유해화학물 시설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소방 수요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김천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은 청사 노후 및 협소로 소방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을 뿐 아니라 소방차량 입고불가,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임. 울진 북면 119지역대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은 '16년 무인방수파괴탐자 도입으로 자고확보 및 출동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층건축물, 한울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각종 재난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구·경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따른 건물 및 장비취득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역별 재활병원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중심재활 및 연계한 공공의료재활사업을 강화코자 함.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5. 9. 18.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전통문화·문화예술 활동의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이상구 의원 외 8명 2015. 9. 18.
- 제안이유: 상위 근거 법률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어 있거나 위배된 규정 및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배영애 의원 외 8명 2015. 9. 18.
- 제안이유: 근거 법률인 「야생동물·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근거 법령과 환경부 고시의 피해보상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이진락 의원 외 8명 2015. 9. 18.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법인·단체가 수행할 경우,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도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배한철 의원 외 8명 2015. 9. 18.
- 제안이유: 입장료 등의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상의 법령 명칭을 표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법제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기 위함.

▶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5. 9. 18.
- 제안이유: 환경관리공사 설립 목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분야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체가 증가하였으므로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설립 불필요함.

▶ 경상북도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5. 9. 18.
-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되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 시행 중에 있음.

▶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이수경 의원 외 5명 2015. 9. 18.
- 제안이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와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관련 민원 해소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박용선 의원 외 4명 2015. 9. 18.
- 제안이유: 「도로법」 제66조, 제6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 제73조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민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

▶ 경상북도 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조현일 의원 외 10명 2015. 9. 18.
- 제안이유: 경상북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교육감 2015. 8. 13.
-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제1항 일부개정)에 따라 어린 이통학자량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행정처분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역사관"에 전시할 소중한 사료(史料)를 찾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개도 70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지방자치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관"에 전시할 물품을 아래와 같이 기증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수집기한 : 2015년 12월 31일까지

2. 수집물품

- 의원 재직시 개인사용 물품(신분증, 당선증, 선서문, 필기구, 수첩 등)
- 의원 배지, 명패, 의사봉, 의회현판, 의원명부 등
- 발간자료 및 홍보자료(의정백서, 의회보, 소식지, 회의록, 의회수첩, 의회사 등)
- 역사적 사건 및 이슈관련 자료(문서, 서류, 책자, 사진 및 CD, 고서적, 필름 등)
- 해외교류(친선도시) 방문 기념품, 의회방문 기념품
- 기관간 협약체결서, 촉구·결의·건의문
-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물품

3. 수 집 처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공보담당

4. 제출방법 : 우편(택배, 등기) 또는 자택 직접방문

- 우편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공보담당

※ 우편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주시면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

- 기증한 물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물품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경상북도의회에 귀속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053-602-5125~7, 5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